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9호 [주제 제25718호] 주제 106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4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4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렬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인민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 게 경의를 드린다》의 노래가 주악되는 속에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에 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인민군렬사추모탑 광역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며 진정한 애국자들인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들의 묘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도착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 대장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들을 추모하여 불어 총구령을 내리였다.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화환진정목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세 세대들이 1950년대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숭고한 조국수호정신, 대중적 영웅주의를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무쟁에서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 재부로 간직하고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기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명도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영웅 조선의 자랑스런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곳곳이 이어 반제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신념의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본사정치보도반

희세의 천출위인 모시여 백승의 력사 영원하리

진 승의 추억 뜨겁게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 특기할 대 경사, 특대사건을 안이온 7월의 조국광장에 예순네번째의 년를 새기며 전승일이 왔다.

대륙간판도로메트까지 보유한 동방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 맹주국으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이 비상히 높이 펼쳐지는 시기에 맞이하는것으로 하여 올해의 7.27은 천만군민에게 더 큰 환희와 승리의 심신을 안겨준다.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공지와 자부심으로 한껏 가슴을 펴는 전승일의 아침 주제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미세의 《강대성》의 신화를 여지없이 깃부 서버리고 백전백승하는 선군조선의 전통을 마비한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비움과 전승의 7월을 영원한 승리의 7월로 더욱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게 대한 끝없는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치고있다.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참관자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이곳 일군이 우리에게 말 하는것이였다.

이날따라 더더욱 길은 의미로 안겨오는 대원수들이 부각되어있는 불대문을 지난 사람들의 발걸음은 금수산태양궁전의 정면의 정중히 모셔져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으로 향하였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한몸에 안아 주시는듯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리드러나서 태양상 양쪽에 새겨형상해놓은 공화국기와 당기가 비장한 의미를 비껴담고 숨뉘어 인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거룩한 영상이 숭엄히 안겨왔다.

위험천만한 고지에도 오르고 바다에도 헤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최강의 전략무기, 주체관철의 연속적인 발사로 우리 공화국의 군력을 최상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어 우리의 국가는 무한한가에 높이 위대할수 있었고 마치와 낮과 낮이 아로써겨진 우리의 당기는 자기의 색조를 변할수 없었 아니었는가.

다고 하면서 이렇게 곁다지였다.

《당의 품속에서 키워온 지혜와 승기와 재능을 어머니당과 사회주의 조국을 위한 과학기술사건에 다 바치려하는것이 우리 과학자들의 신념입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바라시고 당과 조국이 기다리며 인민이 고대하는 첨단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이룩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뿐만의 심정이겠는가. 그것은 뜻깊은 전승일에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사람들이 아니 언제나 태양의 성지에 마음을 얹고 사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끓고있는 열사의 신념과 의지이리라.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몇몇이 들어선 걸의드노이 집단혁신공용의 불길은 새치기 지겨울수록 신성군 송진형동생정의 농장원들, 높은 실력을 갖춘 나라의 믿음직한 혁명인재, 알뜰한 주인공들로 든든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불같은 열의를 다지는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철도종합대학의 청년학생들, 학교를 졸업하면 모두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군대가 되겠다는 세명군 벽산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들 7.27은 미세의 강도적인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낸 제2회 해방의 날이며 세계를 재패하고 노예화하려고 접어들던 미제국주의자들을 멸망의 내리박기에 몰아넣은 공자늬는 승리자의 명절입니다.》

아침부터 내리는 비는 맞지 않고 계속 내리고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혹은 집체적으로, 가족단위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은 그칠새 없었다.

전희의 불비속을 헤쳐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승세대들,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에 감히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미세의 퍼뜨리진광들을 무자비하게 쳐갈고 조국통일사업용 기어이 이룩할 일념으로 방선의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선 인민군 조인들, 대륙간판도로메트 《최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안아 우리 당과 위훈을 세운 과학자, 기술자들...

만리마선구자대회로 향한 전진 총돌전에서 기적과 위훈을 열쳐가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들이거보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현대전쟁사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격렬한 전쟁이였다.

미제는 우리 인민을 굴복시키려고 저들의 군사경제력을 총체로 진선에 세우려고 세군진, 화확진 등 각종 비열한 전쟁수법들에 다 매달렸다. 정규부력으로 강화발전전지 2년 남짓한 조선인민군과 술한 침략전쟁에서 경험을 쌓았다는 미제침략군과의 대결을 두고 그래서 사망의 출판도물들은 미군의 《승리》를 점치고있었다.

하지만 승리한것은 통방만 일떠 선 세 조선이외 세군진에 퍼져의 구형형이여 치박한것은 세계 《최강》을 떠들던 미제였다.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

천년적에도 단애에 쳐부실 단애한 기상으로 온 세상을 깜짝 놀래우신 위대한 수령님.

수인보, 방주, 지혜신을 비롯한 불비를이치는 전장들에 나가서 불비의 지략을 펼쳐주시고 온 나라 전선과 후방을 총칭무전하시며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 불사신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었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으로, 신념과 의지의 인간으로 태어날수 있었다.

전쟁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와 의지에 있어서나 담력과 배양, 전략과 명군술에 있어서 이 세상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가장 결출한 백두명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어 이룩한 력사의 필연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군사관철하기 위해 우리의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이 얼마나 용감히 싸웠는가를,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고귀한 피의 대가로 이루어졌것인가를 금수산태양궁전에 새겨진 오각별 빛나는 공화국기발을 전 하고있다고 전성로명령인 김옥이, 엄복록소인들은 공지에 넘쳐서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부드러운 주안처럼 펼쳐진 과면 장터밭, 몇몇년 잘 자란 거목들과 군기수들을 형성한 군상들을 중심

으로 조화를 부리며 솟구치는 분수, 푸른 물 줄렁이는 울하에서 지류류게 노닐고있는 고니, 물오리들... 주제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러진 광장의 여기서에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전승의 력사를 창조한 승리자의 공지에 대하여 세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있는 전성로명령들의 모습 을 볼수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조선인민군 군관 리근순동무도 만나보았다.

《대대로 수령님, 장군님, 최고사령관님을 지니어 우리 군대는 언제나 승리만을 쫓아왔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선군의 업적과 전통은 끝없이 빛나고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그토록 엄숙하였던 전성로에서도 나에게서 그 어떤 환희를 바라지 말라는 신념으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모습으로 만세 만리마선구자대회에서 전진승을 열치시는

바로 그래서 대륙간판도로메트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더 뜻깊고 의의깊은 올해의 전승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송고한 넋을 하루 빨리 실현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을 기어이 이룩할 마음과 마음이 태양의 성지로 끓어이 흐르고 있는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으로 없이 빛나게 고수해오는 나날 우리는 혁명의 수령이 어떻게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는가를, 당의 위업이 어떻게 빛나게 계속되는가를 심장으로 필감하였습다.》

당의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시장을 실천으로 만드는 참된 일군이 되겠다고 트로하는 국가계획위원회의 임무된 리정일동무의 말이 절절히 울려왔다.

우리와 만년 국방과학부분의 한 연구사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로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큰 기여를 한 자랑스러운 안고 태양의 성지를 찾았

다고 하면서 이렇게 곁다지였다.

《당의 품속에서 키워온 지혜와 승기와 재능을 어머니당과 사회주의 조국을 위한 과학기술사건에 다 바치려하는것이 우리 과학자들의 신념입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바라시고 당과 조국이 기다리며 인민이 고대하는 첨단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이룩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뿐만의 심정이겠는가. 그것은 뜻깊은 전승일에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사람들이 아니 언제나 태양의 성지에 마음을 얹고 사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끓고있는 열사의 신념과 의지이리라.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몇몇이 들어선 걸의드노이 집단혁신공용의 불길은 새치기 지겨울수록 신성군 송진형동생정의 농장원들, 높은 실력을 갖춘 나라의 믿음직한 혁명인재, 알뜰한 주인공들로 든든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불같은 열의를 다지는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철도종합대학의 청년학생들, 학교를 졸업하면 모두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군대가 되겠다는 세명군 벽산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

정녕 돌아오면 불수록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송고한 도덕의 피를 필감하게 하는 금수산태양 궁전광장이였다.

광장을 나서서 걸어나니 드넓게 펼쳐진 수도의 거리들이 나타나는 함해공화국기가 조국의 휘황 찬란한 미래를 비껴담고 가슴씩자게 안겨왔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축복을 뜨겁게 받아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 최후승리의 휘황한 미래가 마주 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리 혁명의 전두에 높이 모시어 승리의 대를 이어 빛나고 7.27은 영원한 조선의 명절로 빛날것이다.

글 쓴사기자 백영 III
사진 김관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조국해방전쟁승리 64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만수대업의 날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으로는 세계전역에서 처음으로 강대한 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우리 조국을 으뜸가는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어 민족단체의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는 경세위인들에게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은 공중들의 물결이 끓어올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명철무쌍한 전략전술, 탁월한 명군술로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창조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과 선군명도업적을 우리 혁명의 만년세대로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세기를 이어온 만세만리마선구자대회를 총칭무전하시며 우리 조국을 총칭무전하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명철무쌍한 전략전술, 탁월한 명군술로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창조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과 선군명도업적을 우리 혁명의 만년세대로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세기를 이어온 만세만리마선구자대회를 총칭무전하시며 우리 조국을 총칭무전하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명철무쌍한 전략전술, 탁월한 명군술로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창조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과 선군명도업적을 우리 혁명의 만년세대로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세기를 이어온 만세만리마선구자대회를 총칭무전하시며 우리 조국을 총칭무전하시며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에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 진정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4돐에 즈음하여 27일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에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력사릉들과 력사묘에의 화환 진정대에 놓여있었다.

렬사릉들과 력사묘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태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인공들과 우방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화환진정대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혁명렬사들에게 영령이 있으라!》, 《애국렬사들에게 영령이 있으라!》, 《영웅적조선인민군 력사들에게 영령이 있으라!》라는 글말들이 쓰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의 명도를 높이 받들어 미일제국주의강적을 물리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에 모은것을 다 바쳐 싸운 력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영웅조선의 전승사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기 위하여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반세만리마선구자대회를 총칭무전하시며 우리 조국을 총칭무전하시며

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의 명도를 높이 받들어 미일제국주의강적을 물리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에 모은것을 다 바쳐 싸운 력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영웅조선의 전승사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기 위하여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반세만리마선구자대회를 총칭무전하시며 우리 조국을 총칭무전하시며

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의 명도를 높이 받들어 미일제국주의강적을 물리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에 모은것을 다 바쳐 싸운 력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영웅조선의 전승사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기 위하여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반세만리마선구자대회를 총칭무전하시며 우리 조국을 총칭무전하시며



신미리에국렬사릉에 화환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7일 주제로 있는 일주초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영성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7일 주제로 있는 일주초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영성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7일 주제로 있는 일주초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영성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7일 주제로 있는 일주초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영성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7일 주제로 있는 일주초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영성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이란이슬람공화국 방문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일성동지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직임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란을 방문하게 된다.

각지에 있는 력사들의 동상과 력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력사묘들에

화환 진정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4돐에 즈음하여 27일 각지에 있는 력사들의 동상과 력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력사묘들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화환진정에는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렬사들의 동상과 력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력사묘들에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화환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의 명도를 총칭무전하시어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진취성을 영예롭게 수호 하였으며 반세만리마선구자대회를 총칭무전하시며

【조선중앙통신】

